

Company Visit

Analyst 문경준
02) 6915-5776
juninearth@ibks.com

Not Rated

현재가(4/03)	54,500원
시가총액	5,145억원
발행주식수	9,441천주
액면가	500원
52주 최고가	64,900원
최저가	43,750원

셀리드 (299660)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의 중장기 투자매력

- Celivax플랫폼 기반의 면역항암제 개발업체
- 핵심파이프라인 BVAC-C(자궁경부암), BVAC-B(위암)
- 면역항암제는 항암제 시장의 큰 트렌드로 투자 및 기술이전이 활발하게 진행중
- 현재 주가는 공모가 대비 63% 상승. 중장기적 파이프라인 투자 매력도 높음.

핵심 파이프라인 BVAC-C(자궁경부암), BVAC-B(위암)

셀리드의 핵심 파이프라인 2개는 BVAC-C와 BVAC-B. 이중 가장 앞서있는 파이프라인은 BVAC-C로 현재 임상2a(적응증: 자궁경부암)를 진행중에 있으며 임상2상 종료 후 2021년 조건부 허가를 통한 매출 시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BVAC-B는 세포막 단백질에서 발견되는 상피성장인자수용체중 하나인 HER2(바이오마커)를 발현하는 암종에 대응하는 항암 치료제. BVAC-B에 대한 임상 1상은 2018년 2월 신촌세브란스 암병원에서 표준 치료에 실패한 HER2 발현 양성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개시. 올해 2분기 중 임상 1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임상 2상을 개시한다는 계획. BVAC-Neo(개인맞춤형 항암치료백신)는 현재 비임상 단계에 있는데 올해 기술이전 가능성이 있어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음. 공모자금 396억원은 파이프라인 임상비용과 제품생산을 위한 GMP생산시설에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마곡산업단지에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

2019년 2월 20일 상장일 시초가는 확정공모가를 32.5% 상승한 43,750원이었으며 현재 주가는 공모가 대비 63.6% 상승한 54,500원을 형성(시가총액 5,145억원). 기업의 자금조달 측면과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 입장에서 성공적인 IPO상장으로 평가. 상장전 셀리드에 투자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보유 주식수는 약 183만주(19.4% 지분율)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114만주(12.1% 지분율)는 1개월간 보호예수로 묶임. 보호예수 물량으로 지정되지 않은 69만주(7.3% 지분율)는 상장 직후 시장에 출회가 가능한 물량으로 현재 시점에서 보면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판단.

(단위: 백만원배)	2014	2015	2016	2017	2018
매출액	-	640	-	-	-
영업이익	-	-620	-1,062	-1,517	-2,374
세전이익	-	-1,125	-1,772	-5,408	-11,286
지배주주순이익	-	-1,125	-1,771	-5,408	-11,286
EPS(원)	-	-	-	-	-
증가율(%)	-	-	-	-	-
영업이익률(%)	-	-96.9	-	-	-
순이익률(%)	-	-175.8	-	-	-
ROE(%)	-	-	-	-	-
PER	-	-	-	-	-
PBR	-	-	-	-	-
EV/EBITDA	-	-	-	-	-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이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시 리서치센터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추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IPO상장, 현재 주가는 공모가 대비 63.5% 상승

공모자금으로
파이프라인 임상 및
생산시설 투자 진행

셀리드의 공모가 밴드는 25,000~31,000원이었으며 확정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을 상회하는 33,000원에 결정. 2019년 2월 20일 상장일 시초가는 확정공모가를 32.5% 상승한 43,750원이었으며 현재 주가는 54,500원을 형성(시가총액 5,145억원). 기업의 자금조달 측면과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 입장에서 성공적인 IPO상장으로 평가. 현재 주가는 공모가 대비 63.6% 상승.

상장전 셀리드에 투자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보유 주식수는 약 183만주(19.4% 지분율)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투자지분인 114만주(12.1% 지분율)는 1개월간 보호예수로 묶임. 보호예수 물량으로 지정되지 않은 69만주(7.3% 지분율)는 상장 직후 시장에 출회 가능한 물량으로 현재 시점에서 보면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판단. 1개월 보호예수물량인 114만주도 일부 시장에 출현하면서 주가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 또한 의무보유확약을 통해 공모에 참여한 기관투자자 물량이 확약 15일과 3개월에 다수 포진해 있어 이부분도 단기적인 주가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표 1.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보호예수 사항

구분	주주명	보유 주식 수	의무보호예수	보호예수 기간
벤처금융	KTBN7호 벤처투자조합	280,616	-	-
	미래에셋캐피탈(주)	266,548	200,751	상장후 1개월
	미래에셋신성장좋은기업 투자조합 16-1호	223,215	168,115	상장후 1개월
	스탁해외진출플랫폼펀드	212,055	84,059	상장후 1개월
	티그리스투자조합6호	166,667	125,526	상장후 1개월
	성장기업 VENTURE 투자조합1호	104,167	78,454	상장후 1개월
	IMM 세컨더리 벤처펀드 제2호	84,000	63,265	상장후 1개월
	미래에셋신성장좋은기업 투자조합17-1호	83,334	62,763	상장후 1개월
	DTNI-KVIC 판교 창조경제밸리 투자조합	62,500	47,072	상장후 1개월
	데일리 임파워링바이오 헬스케어펀드1호	50,000	37,658	상장후 1개월
	위드윈투자조합39호	45,000	33,892	상장후 1개월
	위드윈투자조합1호	30,000	22,594	상장후 1개월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주)	27,273	20,540	상장후 1개월
	전문투자자	삼성증권(주)	83,334	83,334
디에스자산운용(주)		83,333	83,333	상장후 1개월
메리츠종합금융증권		30,000	30,000	상장후 1개월
합계		1,832,042	1,141,356	

자료: 셀리드, IBK투자증권
단위: 주

표 2. 보호예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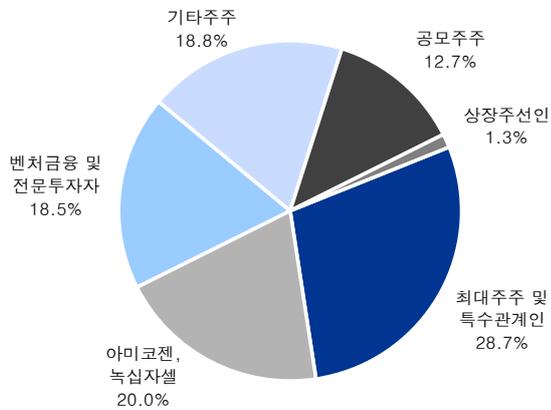
구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공모후)	매각제한
보호예수	최대주주 등 4인(자발적 보호예수)	2,020,000	21.40%	상장 후 3년
	기타 특수관계인	691,000	7.30%	상장 후 1년
	아미코젠(주) (자발적 보호예수)	759,375	8.00%	상장 후 1년
	1년 이내 제3자 배정 주식	250,001	2.60%	상장 후 1년
	벤처금융 등 전문투자자	1,141,356	12.10%	상장 후 1개월
	소계	4,861,732	51.50%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	9,270	0.10%	상장 후 1년
의무보유	상장주선인 의무보유분	30,303	0.30%	상장 후 3개월
	합계	4,901,305	51.90%	

자료: 셀리드, IBK투자증권
단위: 주

공모자금으로
파이프라인 임상 및
생산시설 투자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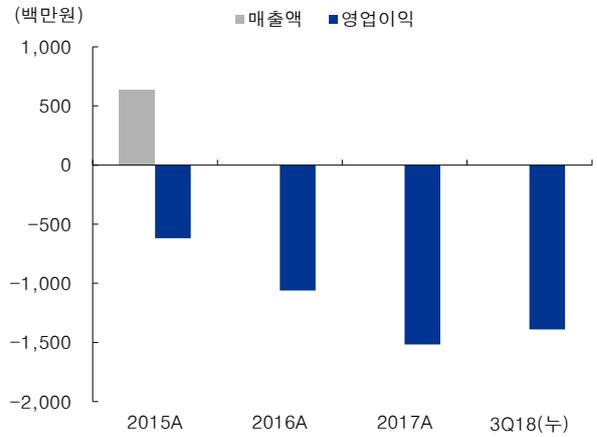
IPO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396억원 규모로 파이프라인 임상 비용과 제품생산을 위한 GMP생산시설에 투자한다는 계획. 생산시설 투자예산 규모는 197억원으로 이중 57억원이 토지(마곡산업단지) 대금으로 지급되었으며 건물/설비에 140억원이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상장 후 주주현황



자료: 셀리드, IBK투자증권

그림 2.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추이



자료: 셀리드, IBK투자증권

표 3. 파이프라인별 매출 추정

구분	2018E	2019E	2020E	2021E	2022E	2023E
제품	-	-	-	6,750	39,600	79,920
BVAC-C (자궁경부암)	-	-	-	6,750	8,640	10,440
BVAC-C (두경부암)	-	-	-	-	-	7,560
BVAC-B (위암)	-	-	-	-	30,960	42,300
BVAC-B (유방암)	-	-	-	-	-	8,820
BVAC-P (전립선암)	-	-	-	-	-	10,800
BVAC-M (흑색종)	-	-	-	-	-	-
BVAC-Neo	-	-	-	-	-	-
기술이전	-	5,000	5,000	13,000	3,000	-
BVAC-C (자궁경부암)	-	-	2,000	-	-	-
BVAC-C (두경부암)	-	-	-	-	-	-
BVAC-B (위암)	-	-	3,000	-	-	-
BVAC-B (유방암)	-	-	-	-	-	-
BVAC-P (전립선암)	-	-	-	3,000	-	-
BVAC-M (흑색종)	-	-	-	-	3,000	-
BVAC-Neo	-	5,000	-	10,000	-	-

자료: 셀리드 증권신고서, IBK투자증권
단위: 백만원

표 4. 추정 손익계산서

사업연도	2017E	2018E	2019E	2020E	2021E	2022E	2023E
매출액	-	-	5,000	5,000	19,750	42,600	79,920
매출총이익	-	-	5,000	5,000	18,499	37,669	70,761
영업이익	-1,517	-2,731	-375	-1,771	6,749	19,263	44,865
당기순이익	-5,408	-11,829	-375	-1,771	6,749	19,263	35,016

자료: 셀리드 증권신고서, IBK투자증권
단위: 백만원

Celivax기술기반의 항암면역치료제 개발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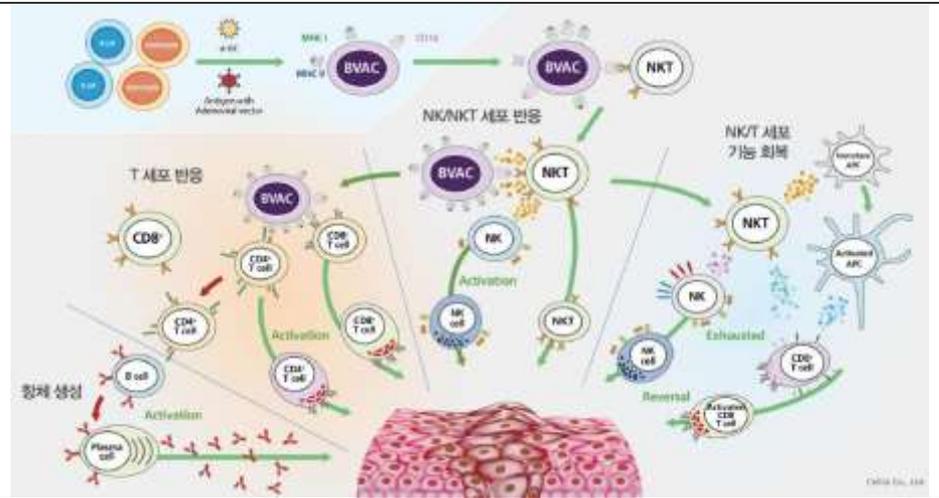
B세포 및 단구세포를 활용한 항암면역치료백신

셀리드의 핵심 플랫폼기술인 Celivax는 세포를 기반으로 한 항암면역 치료제. 동사의 세포치료제는 자가유래 B세포와 단구세포를 항원제시세포로 이용하며 암세포에서만 과다발현하는 암항원 유전자를 탐색해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와 면역증강제(a-GC, galactosyl ceramide)로 항암면역작용을 일으키는 기전.

B세포(B Cell)는 림프구의 한 종류로 특정 병원체에 대해 항체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 B세포는 면역반응에 의해 체내 미생물들을 파괴하여 세포 내에서 감염으로 전파하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 단구세포는 정상혈액의 4~8% 비중을 차지하는 백혈구 종류로 체내 식균작용에 관여(면역작용).

동사가 활용하는 B세포와 단구세포는 혈중 충분량이 있어 채취 및 치료제 생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지상세포 대비 항원제시세포로서의 효과가 낮다는 단점이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Celivax는 면역증강제(a-GC)를 투입하여 면역작용을 강화시킴. Celivax의 항암기전은 모든 항암면역 반응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데 이를 통해 기억면역 반응 또한 효과적으로 유도되어 암재발 방지 효과도 일정부분 보여주고 있음. 셀리드의 항암치료기전은 최근에 각광 받고 있는 면역항암치료 중에서 B세포/단구세포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First in Class 항암 치료제로 볼 수 있음.

그림 3. Celivax 플랫폼 기술의 작용기전



자료: 셀리드, IBK투자증권

그림 4. 항암제 시장 세대별 분류



자료: 셀리드, IBK투자증권

Celivax 플랫폼 기술

Celivax는 셀리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암면역치료 플랫폼기술이며 BVAC은 Celivax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파이프라인 코드명. Celivax의 항암기전은 적응면역계와 선천면역계를 동시에 활성화해 암세포를 제어. Celivax는 적응면역계의 세포독성 T세포 활성화를 통해 암항원에 특이적인 항체생산을 유도하며 동시에 선천면역계의 NK/NKT(자연살해)세포도 활성화시켜 비균질 특성의 암도 효과적으로 제어.

Celivax와 관련된 핵심 특허는 ‘자연살해 T세포의 리간드와 항원을 적재한 B세포를 매개로 하는 백신과 ‘자연살해 T세포의 리간드와 항원을 적재한 단핵구 또는 미분화 골수성 세포를 포함하는 백신’으로 관련 특허 만료시점은 2026년이며 BVAC-C 시판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제도를 통해 2031년까지 특허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Celivax의 복합작용 기전으로 암세포의 면역회피작용도 일부 극복이 가능하며 기억면역 반응을 생성해 내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CAR-T치료제에 비교해서 특정 암에 대한 반응성(세포공격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이 단점인데 면역증강제를 투입해 이러한 부분을 일정부분 보완하고 있음. Celivax는 단독치료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비즈니스 전략 측면에서 상용화 의약품인 키트루다와 옵디보와 같은 면역관문억제제와의 병용투여도 연구중. 면역관문억제제는 암세포의 인식회피 기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Celivax의 핵심기전인 암항원인 식능력 제고를 통한 면역반응 활성화와 경쟁관계에 있다기 보다는 작용기전 측면에서 면역관문억제제와의 병용투여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

비즈니스 전략
국내: 직접 상용화
해외: 기술이전/개발협력

동사의 파이프라인 전략은 국내 시장에서는 직접 임상을 진행 후 직접 생산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의 경우 좀더 효율적인 시장진출을 위해 임상/연구 개발협력 또는 기술이전 전략으로 접근. 대표 파이프라인 BVAC-C의 경우 美 NeoImmuneTech와 2014년에 미국 내 개발 진행 및 판권에 관련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BVAC-C는 비임상 단계에서 기술이전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국내 임상2상을 진행 중에 있음. 해외 시장의 경우 중소형사이즈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 진출에 필요한 자원이 제한적이어서 기술 이전을 통한 파이프라인 공유와 판매채널 공략이 필수 전략으로 활용되는 추이.

미국의 1천만달러 이상의 기술이전 계약 실적을 보면 규모 면에서는 당연히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에 대한 계약규모가 훨씬 높겠지만 계약건수 면에서는 비임상단계와 임상단계 계약건수가 50% 수준으로 유사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동사는 현재 BVAC-C와 함께 비임상단계의 BVAC-P, BVAC-M, BVAC-Neo에 대해서도 해외 파트너와의 개발협력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 향후 해외 제약/바이오 업체와의 기술이전 및 협력계약 체결 여부가 동사의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됨.

임상용 의약품은
녹십자셀 GMP시설에 위탁

셀리드는 파이프라인용 비임상시료 및 원료의약품은 자체 연구시설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임상시험에 필요한 완제의약품 및 원료는 전략적 파트너사인 녹십자셀의 GMP 시설에서 위탁생산해서 임상을 진행. 중요한 전달체 원료인 아데노바이러스 원료의약품은 바이러스 벡터 생산경험이 많은 전남생물의약품연구센터에서 위탁생산중에 있음. 참고로 아데노바이러스는 이중나선 DNA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척수동물을 숙주로 갖고 있으며 감염시 감기와 같은 가벼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데 최근 약물을 전달하는 전달체로 자주 활용되고 있음.

Celivax는 생산측면에서
비용 효율적

생산측면에서 대부분의 항암면역치료백신은 세포를 선별/배양해 활성화하는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체혈(자가세포 기반의 백신)부터 치료제 생산까지 수지상세포백신의 경우 1~2주 그리고 T세포의 경우 2~4주의 제조시간이 소요. 이에 반해 Celivax 치료제는 체혈을 통해 채취한 B세포와 단구에 면역증강제와 적합한 항원을 섞어 바로 치료제 생산이 가능하며 치료제 생산기간은 1~2일로 제조공정 상의 특징으로 타 면역치료제 대비 생산비용 관점의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

강창울 대표이사

강창울 대표는 1981년까지 서울대에서 약학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에서 면역학 박사 학위를 취득. 이후 면역학 산업과 학계에서 활발한 행보를 보여주었으며 2003~2004년에는 대학면역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음. 1994년부터 서울대학교 약학대 정교수를 역임하고 있으며 면역기반의 항암치료백신을 상업화 하기 위해 2006년 12월 셀리드를 설립.

BVAC-C 2021년 상용화 목표

BVAC-C
자궁경부암 적응증
임상 2a 진행중

임상을 진행중인 2개의 핵심 파이프라인은 BVAC-C와 BVAC-B. 이중 가장 앞서있는 파이프라인은 BVAC-C로 현재 임상2a(적응증: 자궁경부암)를 진행중에 있으며 임상2상 종료 후 2021년 조건부 허가를 통한 매출 시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제는 시급한 의학적 과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의약품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할 경우 치료적 탐색임상시험 자료로 확장임상시험 자료를 갈음하는 제도로 BVAC-C가 이 조건에 충족할 경우 목표로 하는 2021년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자궁경부암의 경우 수술이 불가능한 재발성/지속성/전이성 자궁경부암의 표준치료로 전신화학요법(Cisplatin, Paclitaxel, Bevacizumab)이 사용됨. 표준치료 후 재발한 환자의 경우 적합한 2차 치료제 대안이 많지 않아 재발환자의 생존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음. BVAC-C는 2차치료제 또는 상용화된 치료제와 병용투여를 통한 치료 유효성을 탐색하고 있는 단계.

BVAC-C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Human Papiloma virus)에서 유래한 암종을 적응증으로 하는 항암면역치료백신으로 대표 적응증은 자궁경부암. HPV는 이중나선상 DNA바이러스로 현재까지 알려진 바이러스 종류만 100여 종이 있으며 이 중 고위험성인 16/18형 바이러스가 자궁경부 상피 내에 병적인 변화를 일으켜 자궁경부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짐. HPV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이외에 두경부암/항문암/성기암/질암의 원인이 되기도 함.

BVAC-C은 2014년 12월에 美 ImmuneTech와 56.7만달러 규모로 비임상단계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됨. 대상시장은 미국으로 BVAC-C에 관련된 기술 및 특허를 미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독점적배타적 전용 실시권한을 부여(HPV바이러스 감염으로 유발되는 감염질환 및 암치료 대상). 또한 셀리드의 사전동의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재실시 권한도 부여. 반환의무 없는 Upfront payment로 56.7만달러를 수취하였으며 Milestone(단계별 성공보수)없이 상용화 단계에서 제품 순매출의 4% Royalty(로열티)를 수령하는 구조. 현재 BVAC-C의 미국 내 진행계획은 2019년에 IND승인을 마무리하고 2020년에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진행한다는 계획.

국내 임상의 경우 2014년 비임상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표준치료에 실패한 자궁경부암 환자 9명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하였으며 일부 환자에게 발열/근육통 등의 경미한 수준의 이상약물반응이 보였으나 1~2일 내에 대부분 회복되며 안정성 확인을 받았으며 2018년 6월에 임상 2a를 개시함.

BVAC-B
위암 적응증
임상 1상 진행중

BVAC-B는 세포막 단백질에서 발견되는 상피성장인자수용체(hEGFR: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중 하나인 HER2/neu를 발현하는 암종에 대응하는 치료제. HER2/neu가 과다발현된 종양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상용화된 표적치료제로 로슈의 Trastuzumab 항체 의약품이 있음. HER2/neu는 유방암/위암/난소암/대장암/빌름스종양 등 다양한 암종에 발현되는데 BVAC-B는 HER2/neu 발현이 진단된 암종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 최종 목표. BVAC-B에 대한 임상 1상은 2018년 2월 신촌세브란스 암병원에서 표준 치료에 실패한 HER2/neu 발현 양성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개시. 올해 2분기 중 임상 1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임상 2상을 개시한다는 계획.

표 5. HER2/neu 암항원 발현 암종

암항원	암종	발현비율
HER2/neu	유방암	20~30%
	위암	4~53%
	난소암	5~19%
	췌장암	7~61%
	폐암	7~23%
	자궁내막암	17~52%
	빌름스종양	51%
	대장암	26~48%

자료: 셀리드, IBK투자증권

BVAC-Neo
개인맞춤형 항암치료제

BVAC-Neo는 완전환자 개인맞춤형 항암치료백신. 환자 개인의 암세포 검체에서 DNA를 추출한 뒤 전체 염기서열을 RAN-Seq, Exome-Seq 등의 방법으로 분석. 이렇게 분석된 돌연변이 염기서열을 정상염기서열과 비교 분석하여 돌연변이에서 생성된 neo-antigen을 발굴하고 이로부터 neo-epitope(항원특이성을 결정하는 구조, 항원 결정기)를 유추. BVAC-Neo는 현재 비임상 단계에 있으며 올해 기술 이전을 통한 사업성과 가시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림 5. 파이프라인별 개발 스케줄



자료: 셀리드, IBK투자증권

3세대 면역항암제가 항암제 시장의 큰 트렌드 형성

3세대 면역항암제 업체

항암제는 1940년대 개발된 1세대 화학독성항암제(Chemotherapy)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에는 암세포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표적항암제(Targeted Drugs Therapy)로 발전하였으며 2013년 이후에는 3세대 항암치료제로 언급되는 면역항암제(Immunotherapy)가 차세대 항암치료제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항암신약은 일반적으로 표준치료에 실패한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환자 모집이 쉽지 않으며 성공확률 또한 타 치료제 대비 낮음. 항암제의 FDA 임상성공률(임상1상에서 신약승인까지) 평균치가 9.6%이며 여기서 항암제 승인율은 5.1%로 비항암제의 11.9%의 절반 수준. 항암제 개발은 난이도가 높지만 그만큼 시장에 대한 수요가 많고 성공에 대한 보상이 크기 때문에 현재 활발한 연구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글로벌 항암제 시장규모 1,040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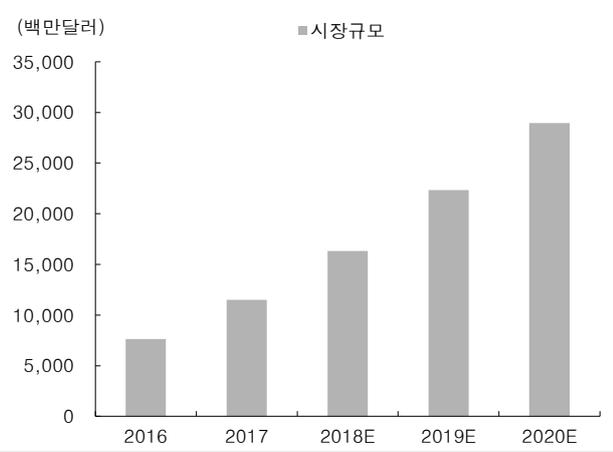
글로벌 항암제 시장규모(2017년)는 약 1,040억달러(전체 제약시장 7,880억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여기에서 최근 가파르게 성장한 면역항암제가 337억달러를 차지. 인간의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비례적으로 암발생 환자수도 증가추이. 글로벌 제약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6%와 비교해서 글로벌 항암제 시장의 성장률은 12%로 항암제 시장이 전체 제약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음. 현재 면역항암제는 개발된 치료제가 많지 않고 높은 개발비용과 치료비용으로 인해 치료제로서의 제약이 많은데 이러한 문제들이 점차 해소되면서 2024년에는 면역항암제 비중이 전체 항암제시장의 45% 비중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6. 항암치료 종류에 따른 특징 및 장단점

	수술치료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표적항암제	면역치료
적용대상	국소고형암	국소고형암 국소전이암	전이암 국소전이암	전이암 국소전이암	전이암 국소전이암
장점	초기암 적용용이 비전이성 고형암	비침습치료 치료 간편	비침습치료 생존연장	적은 부작용 생존 기간 연장	높은 삶의 질 면역반응 치료 낮은 재발율 병용투여 용이
단점	장기적출 장기손상 발생 수술후 통증휴유증 수술이 어려운경우	정상조직 손상 치료효과 제한적	정상조직 손상 전신부작용 면역력저하 낮은 삶의 질 재발가능성 높음	특정유전자에 반응 내성 발현 가능성 제한적 환자 대상	치료제 수 제한적 비급여 치료 높은 비용 치료 대상수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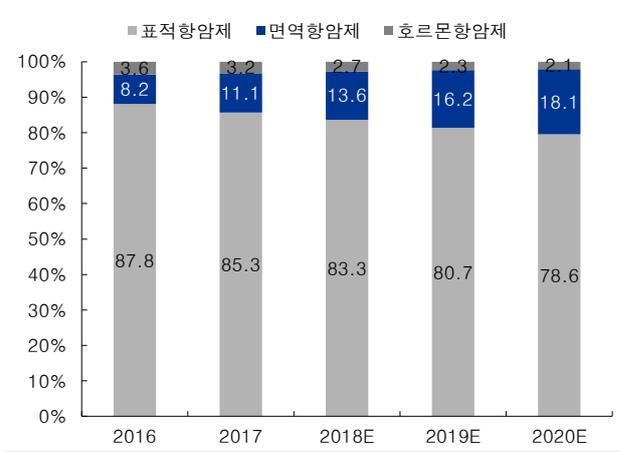
자료: 셀리드, IBK투자증권

그림 6. 글로벌 면역항암제 시장규모 추이



자료: 셀리드, IBK투자증권
참고: 대표 면역항암제 Keytruda, Opdivo

그림 7. 글로벌 항암제 시장 점유율 추이



자료: 셀리드, IBK투자증권
참고: 수술/방사선요법/화학요법 비포함 기준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명	담당자	담당자(배우자) 보유여부			1%이상 보유여부	유가증권 발행관련	계열사 관계여부	공개매수 사무취급	IPO	회사채 지급보증	중대한 이해관계	M&A 관련
		수량	취득가	취득일								
해당사항없음												

투자의견 안내 (투자기간 12개월)

종목 투자의견 (절대수익률 기준)			
적극매수 40% ~	매수 15% ~	중립 -15% ~ 15%	매도 ~ -15%
업종 투자의견 (상대수익률 기준)			
비중확대 +10% ~	중립 -10% ~ +10%	비중축소 ~ -10%	

투자등급 통계 (2018.04.01~2019.03.31)

투자등급 구분	건수	비율(%)
매수	132	85.2
중립	23	14.8
매도	0	0.0